

# 폭염 대비 7월부터 양산대여·생수냉장고 등 운영

## 장마 대비 선제적 안전 점검

### TF팀 가동... 그늘막·쿨링포그 등 확대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구는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위와의 전쟁'에 들어갔다. 우선 9월말까지 폭염태스크포스(TF)팀과 온열질환감시체계를 운영해 취약계층을 특별관리한다. 또 폭염경보가 심각단계(혹염) 이상이 발령되면 폭염TF팀의 상위 단계인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으로 관내에 그늘막 97곳, 쿨링포그 16곳, 버스 승강장의 에어컨(송풍기) 92곳 등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평화공원의 산책로와 바다분수 인근에 쿨링포그를 신규 설치를 완료했다.



대전초등학교 인근 파리바게트 앞에 새로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무더위쉼터 125곳을 운영하고 지난해 크게 인기를 끈 야외 무료 생수냉장고도 운영한다. 7~9월 평화공원 중앙분수대 등 관내 8곳에 생수냉장고를 통해 생수 9만병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같은 기간 소막마을 주민공동체센터와 용호별빛공원,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 41곳에도 생수 3만병을 지원한다.

7~9월까지 S:UN 남구 양산대여 사업도 시작했다. 남구청, 용호별빛공원,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9곳에 양산양산을 비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반납하면 된다.

도심지 열섬 완화를 위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이면도로와 주택밀집지역에 노면 살수차량을 상시 운행하고 진공흡입과 살수 기능을 갖춘 물청소차량 3대도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된다.

안전총괄과 ☎607-4647



오은택 남구청장이 평화공원에 설치된 무료 생수냉장고에 주민들에게 나눠줄 생수를 넣고 있다. 폭염에 대비해 남구 관내 9곳에 설치된 생수냉장고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운영된다. 아래 사진은 평화공원 분수대에 새로 설치된 쿨링포그.

### 남구 무료 생수냉장고로 더위 탈출!

- 평화공원 중앙 분수대 인근(대연동 693-1)
- 평화공원 3번 출입구 체육시설 인근(대연동 813-26)
- 남구청사 1층 입구(못골로 19)
- LG메트로 측 교통섬(대연동 1635-12)
- 분포공원 황토길(용호동 176-9 일원)
- 이기대공원 사회체육자 배려길 정자 인근(용호동 산27 일원)
- 감만2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석포로 32-1)
- 문현교통광장 황토 (문현동 843-1 일원)
- 소막마을 주민공동체센터 1층(우암변영로 19)

1일 생수제공: 1인 1병  
운영기간: 7~9월  
생수보충: 하루 3회(10:00~11:00, 13:00~14:00, 16:00~17:00)



### 하수구 등 일제 점검

남구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구 일제 점검'을 지난 6월 18일 실시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침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오은택 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및 도로보수원 등 40여명은 용호1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중앙도로변 1.5km 80여곳 하수구 퇴적물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을 실시했다. 하수 역류와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어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쌓여 있는 낙엽과 쓰레기, 퇴적물 등을 일일이 수거했다.

또 남구는 매달 대남·문현지하차도 배수로 준설 작업 및 우·오수관



남구의 하수구 퇴적물 제거 작업이 JTBC 뉴스에 소개돼 7월 1일 기준 83만명이 시청하는 등 화제가 되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로, 맨홀, 하수구 덮개 등 배수 막힘 요인을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 행정복지센터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수방 장비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 수리가 필요한 장비는 즉시 조치하는 등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시관리과 ☎607-4658



오은택 남구청장 등 구청간부들과 도로보수원 등 40여명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하수구의 퇴적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으로 보는 구정 소식



**상반기 기업상생간담회** 2025년 상반기 기업상생간담회가 지난 6월 27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이 건의됐다.



**남구 청년 소셜리빌리티 출범** 남구 청년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2025년 청년 소셜리빌리티 사업이 지난 6월 18일 청년창조발전소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건강상담소** 남구의 '찾아가는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소'가 지난 6월 12일 동명대 내 반려견 놀이터 '동숲'에서 열렸다.



**남미향 명예구청장 위촉** 2025년 제1대 1일 명예구청장에 남미향 남구자원봉사센터 이사가 지난 6월 30일 위촉돼 CCTV통합관제센터, 이기대 보행약자 보행길 등을 현장 방문했다.

### 빗물받이 관리만 잘해도 도심침수 '제로'

####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위해서는

- 빗물받이에 담배꽂초, 쓰레기 등을 버리지 않기
-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 쓰레기,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이나 구청에 알리기



## 문현역에 스마트도서관 개관

### 신간서적 500여권 비치... 1인 3권 자율 대출·반납

도시철도 문현역사 내에 '남구 스마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문현역 2번 출구 방향 지하층에 개관한 스마트도서관은 남구청 2층 출입구 옆 무인민원발급실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에 이어 남구 스마트도서관 2호로 지하철 운영시간 안에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도서관은 부산시 공공도서관 통합회원 회원증인 책이음 회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1인 3권을 15일간 대출할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도서대출 반납기로 4단 서가에 신간 및 베스트셀러 500여 권을 적재할 수



있다. 또 무선인식시스템 RFID 검색과 대출이력 조회도 가능하다. 남구 스마트도서관은 신간 및 베스트셀러 500여 권을 적재할 수

도서관과 ☎607-6578



## 전국 첫 드론 활용 민관경 합동 빈집 점검

빈집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남구는 감만1개개발 구역 내 빈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경찰서와 드론을 활용한 민·관·경 합동점검 및 순찰

활동을 지난 5월 28일 실시했다.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활용해

빈집을 점검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점검·순찰 활동에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등 70여명도 참여했다.

점검은 도보 접근이 어렵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대상으로 부산경찰청의 광범위 수

색 드론을 이용하고, 민·관·경 합동 순찰 2개팀이 순찰을 통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완료 후 향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경의 지속적 협력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건축과 ☎607-4616

### 남구 HMM 부산 이전 관련 성명서

## “HMM 서울 본사는 우암부두로 와야 합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 기조 속에, 우암부두가 해양산업 전략 거점으로 본격 추진되는 것을 26만 남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을 향한 해양 주도권 확보의 출발점이 바로 이곳, 우암부두에서 시작됩니다. 암부두는 항만과 도심이 맞닿은 전국 유일의 해양도시형 산업 부지로, KTX·광역철도·국제항만·공항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거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항선 철도 연결이 예정되어 있어, 물류 접근성과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제금융 중심지인 문현금융단지와의 인접성은 해양·금융 융합 산업 육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4개 대학이 위치해 풍부한 연구 역량과 인재 양성 기반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암부두 일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이 조성된 준비된 부지로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이 즉시 가능한 전략적 입지입니다.

이것이 해양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부산시, BPA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입지 조성부터 인허가, 기업 유치까지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구의 미래와 부산의 글로벌 TOP5 해양도시 도약을 위해 우암부두에 HMM을 비롯한 대형 해운선사의 유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은택 남구청장 외 직원 일동

### ■HMM은 어떤 기업

현대상선에서 2020년에 사명을 바꾼 HMM(Hyundai Merchant Marine)은 컨테이너선, 벌크선(원자재 운반), 유조선 등을 운항하는 국내 최대 글로벌 해운기업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산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